B

보아스논술 · 대학기출 첨삭연구소

BOAZ ESSAY · DIRECT MARKUP

원문 직첨삭

학생이 제출한 실제 원문 위치를 기준으로 감점 지점과 교정 방향을 확인하는 리포트

STUDENT

김보아 학생

첨삭 단계	1차 답안 첨삭	**기준**	평가형 글쓰기 · 문항 1
현재 점수	91 / 100	**답안 경쟁력**	91점 · 상위권 답안

REPORT GUIDE

원문 위치 → 감점 이유 → 수정 원칙 → 고쳐 쓴 문장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 답안 첨삭 → 둘째 답안 재첨삭 → 최종 제출본 완성

발행 2026.10.05 · REPORT d5aecb67

원문 직첨삭 · 김보아 · 문항 1

기초1 자유첨삭 · 1/1쪽

제 시 문 (가) 에 서 는 경 제 행 위 가 선 택 이
며 , 합 리 적 인 선 택 을 하 기 위 해 서 는
선 택 으 로 얻 는 편 익 과 그 로 인 해 포 기
하 게 되 는 기 회 비 용 을 비 교 해 야 한 다 고
본 다 . 기 회 비 용 에 는 실 제 로 지 출 하 는
명 시 적 비 용 과 다 른 기 회 를 포 기 해 서
발 생 하 는 암 묵 적 비 용 이 포 함 된 다 .
[기 초 1 강 교 안] 입 시 논 술 이 란 (
1) 이 러 한 관 점 에 서 (나) 를 보 면
대 학 진 학 의 부 담 은 전 보 다 커 지 고 있
다 고 볼 수 있 다 . 대 졸 자 와 고 졸 자 의
임 금 격 차 가 1 9 9 0 년 1 7 4 . 6 에
서 2 0 0 5 년 1 5 4 . 9 로 줄 어 들 었 으
므 로 , 대 학 에 진 학 하 면 서 포 기 하 는 고
졸 취 업 의 가 치 가 상 대 적 으 로 커 졌 다 .
또 한 대 학 등 록 금 은 장 기 간 물 가 보 다
높 은 수 준 으 로 상 승 해 직 접 지 출 해 야
하 는 비 용 도 증 가 하 였 다 . 반 면 대 학
의 교 육 수 준 과 경 쟁 력 은 높 지 않 아
대 학 진 학 으 로 얻 는 이 익 도 크 다 고 보
기 어 렵 다 . [기 초 1 강 교 안] 입
시 논 술 이 란 (1) 따 라 서 (다) 에 서
대 학 진 학 률 이 낮 아 지 고 고 졸 취 업 률 이
증 가 하 는 현 상 은 대 학 진 학 의 비 용 이
커 진 상 황 에 서 나 타 난 선 택 이 라 고 볼
수 있 다 . 대 학 진 학 의 편 익 이 충 분
하 지 않 은 상 황 에 서 취 업 을 선 택 하 는
것 은 경 제 적 으 로 어 느 정 도 합 리 적 인
행 동 이 라 고 평 가 할 수 있 다 .
[기 초 1 강 교 안] 입 시 논 술 이 란 (1) 약
5 3 0 자 .

100 200 300 400 500 600 606

(1) '대학 진학의 명시적 비용인 등록금과 암묵적 비용인 포기한 고졸 취업의 상대적 가…

(2) '대졸자의 임금 우위가 줄어 대학 진학의 임금상 편익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포기…

(3) '최근 경제위기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낮았지만, 199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물가보…

(4) '대학 진학의 편익이 증가한 등록금이라는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고졸 취업 임금이라…

원문 직첨삭 상세

앞쪽 번호와 화살표가 가리킨 문장을 기준으로, 감점 요인과 수정 방향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부담'을 두 비용 이름으로 구체화 · 교사확정

학생 원문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보면 대학 진학의 부담은 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점 요인] 학생은 (나)의 전체 방향을 맞게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대학 진학이 부담스럽다는 감상을 묻지 않고, (가)의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이용해 그 부담을 설명하라고 한다. 따라서 첫 문장에 등록금이라는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고졸 취업의 가치라는 암묵적 비용의 이름을 넣으면 개념 적용이 바로 보인다.

[쉽게 정리하면] 넓은 말인 '부담'만 먼저 쓰면 실제로 무엇이 커졌는지 채점자가 다시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등록금은 명시적 비용이고 포기한 고졸 취업의 가치는 암묵적 비용이다.

[문제에서 다시 볼 부분]

〈제시문(가)〉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명시적 비용)과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암묵적 비용)"

→ 이 구절을 보면 '부담'이라는 말을 두 비용의 정확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어라] 시험장에서 (가)의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에 표시한다. 그다음 (나)에서 실제 지출에 해당하는 등록금과, 대학에 다니는 동안 포기하는 고졸 취업의 임금에 해당하는 자료를 각각 찾는다.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어떤 여행의 비용이 커졌다고만 쓰면 교통비가 오른 것인지 숙박비가 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비용을 분석할 때는 실제 지출 항목과 포기한 다른 기회의 가치를 나누어 써야 한다.

[수정 원칙] '부담'이나 '비용'이라는 말을 쓰면 바로 뒤에 실제 지출인지 포기한 기회의 가치인지 이름을 붙인다.

[수정 문장 예시]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보면 대학 진학의 명시적 비용인 등록금과 암묵적 비용인 포기한 고졸 취업의 상대적 가치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원문 직첨삭 상세

Point 2 이어보기

2 임금 우위 감소와 편익 감소를 한 단계 연결 · 교사확정

학생 원문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1990년 174.6에서 2005년 154.9로 줄어들었으므로, 대학에 진학하면서 포기하는 고졸 취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감점 요인] 현재 문장은 결론 자체는 맞는 방향이다. 다만 '154.9로 줄었으므로' 다음에 대졸자의 고졸자 대비 임금 우위가 낮아졌다는 설명을 하나 더 넣으면 수치와 대학 진학의 임금상 편익 및 암묵적 비용의 관계가 더 분명해진다.

[쉽게 정리하면] 수치 뒤에 바로 결론을 쓰면 독자가 '왜 지수 감소가 고졸 취업 가치 증가인가'를 스스로 보충해야 한다.

[문제에서 다시 볼 부분]

〈제시문(나)〉 "학력별 임금격차 지수는 1990년의 경우 174.6이었으며, 2005년에는 154.9로 나타났다."

→ 174.6과 154.9의 감소를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 우위 감소로 해석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어라] 174.6과 154.9에 밑줄을 긋고 지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대졸자의 임금 우위가 낮아져 대학 진학의 임금상 편익이 줄고, 대학에 진학할 때 포기하는 고졸 취업의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대학 진학 후 받는 추가 장학금이 예전보다 줄었다면,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할 때 얻는 기회의 상대적 가치는 커진다. 추가 장학금의 감소와 취업 기회의 상대적 증가를 중간 단계로 연결해야 한다.

[수정 원칙] 수치를 쓴 뒤에는 그 수치가 증가·감소한 대상과 그 결과를 한 번씩 풀어 쓴다.

[수정 문장 예시] "대졸자의 고졸자 대비 임금 우위가 1990년 74.6포인트에서 2005년 54.9포인트로 줄었으므로, 대학 진학으로 얻는 임금상의 편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포기하는 고졸 취업의 가치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원문 직첨삭 상세

Point 3 이어보기

3 최근 예외와 장기 추세를 함께 표시 · 교사확정

학생 원문 "또한 대학 등록금은 장기간 물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직접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였다."

[감점 요인] 학생이 쓴 장기 추세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다만 자료 전체에는 서로 다른 기간의 정보가 함께 있으므로, 한쪽만 쓰면 자료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최근 경제위기 기간에는 낮았지만, 199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높았다'고 짧게 정리하면 정확성이 높아진다.

[쉽게 정리하면] 서로 다른 기간의 수치를 한 방향으로 합치면 최근 자료와 장기 자료의 차이가 사라진다.

[문제에서 다시 볼 부분]

〈제시문(나)〉 "대학등록금은 최근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 최근 기간의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어라] 등록금 자료에서 '최근 경제위기 기간'과 '1990년 이후 평균'을 각각 표시한다. 둘이 반대 방향이면 '최근에는 A였지만 장기적으로는 B였다'의 문장으로 묶는다.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올해 한 달의 지출은 줄었지만 10년 동안의 평균 지출은 늘었다면, '항상 지출이 늘었다'고 할 수 없다.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을 나누어 말해야 한다.

[수정 원칙] 자료에 기간이 두 개 이상 나오고 방향이 다르면 '최근에는 A지만 장기적으로는 B'의 대조 문장을 만든다.

[수정 문장 예시] "대학 등록금은 최근 경제위기 기간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지만, 199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대학 진학의 명시적 비용을 키웠다."

원문 직첨삭 상세

Point 4 이어보기

4 비용 증가와 편익 부족을 비교해 평가 · 교사확정

학생 원문 "따라서 (다)에서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고졸 취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대학 진학의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나타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점 요인] 학생의 결론은 방향이 맞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도 적절하다. 그러나 합리성은 등록금과 포기한 고졸 취업 임금이라는 비용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학 교육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된다. 대학 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이 낮아 편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을 결론의 판단 기준으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비용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성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를 써야 한다.

[문제에서 다시 볼 부분]

〈제시문(가)〉 "하나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에 따른 득(편익)과 실(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 합리성 평가의 기준이 비용 하나가 아니라 편익과 비용의 비교임을 알려 주는 문장이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어라] (다)의 진학률 77.8%→71.3%, 취업률 23.3%→29.3%를 확인한다. 그다음 (나)의 등록금과 포기한 고졸 취업 임금이라는 비용 증가, 대학 교육의 낮은 편익을 함께 놓고 취업 선택이 합리적인지 판단한다.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노트북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구매하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격이 오른 만큼 성능이 좋아졌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수정 원칙] 합리성 평가에서는 '비용이 얼마인가'와 '그 비용을 감당할 편익이 있는가'를 한 문장에 함께 쓴다.

[수정 문장 예시] "따라서 진학률 77.8%에서 71.3%로의 하락과 취업률 23.3%에서 29.3%로의 상승은, 대학 진학의 명시적·암묵적 비용이 커진 반면 대학 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이라는 편익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선택한 현상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문 직첨삭 상세

Point 5 이어보기

5 편익과 두 비용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완성 · 교사확정

학생 원문 "대학 진학의 편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감점 요인]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는 좋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그렇게 판단했는지, 즉 편익이 증가한 명시적·암묵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쓰면 결론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쉽게 정리하면] 판단은 있지만 판단 기준이 문장 안에서 생략되어 있다. 채점자는 결론의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서 다시 볼 부분]

〈제시문(가)〉 "이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최종 평가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한 결과와 대학 진학의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어라] 마지막 문장을 쓸 때 '그래서 편익과 기회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자문하고 그 답을 결론에 넣는다.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은데 가격과 관리비가 모두 올랐다면, 그 물건을 사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인 이유는 '성능보다 총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도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비교를 밝혀야 한다.

[수정 원칙] 평가 결론은 '무엇이 더 큰가' 또는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가'를 포함해 이유와 함께 끝낸다.

[수정 문장 예시] "대학 진학의 편익이 증가한 명시적·암묵적 비용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으므로, 취업을 선택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오늘 고친 한 문장이 다음 답안의 기준이 돼.

BOAZ 선배노트 · 재구성 학습 멘트